

단기 선교팀 신청서

출력날짜 : 2019-08-11

※ Team No : 2019-032

1. 신청부서 :

(팀명 : 미얀마7팀)

②

2. 선교국가 : 미얀마

3. 사역지 : 양곤

4. 공 항 :

5. 사역기간 : 2019년 07월 30일 (화) ~ 2019년 08월 05일 (월) - 6박 7일

선교위원회 확인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서기]

[지도목사]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지역	CMTC 1차2차	교적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사무 안수집사	김원기	8		○ ○	2005-0019					
2	총무	사무 서리집사	이수길	12		○ ○	91-183					
3	서기	사무 서리집사	유미향	4		○ ○	96-731					
4	의료	사무 권사	오영선	11		○ ○	80-758					
5	팀원	사무 서리집사	윤수진	8		○ ○	98-1147					
6	팀원	사무 서리집사	이유순	11		○ ○	2006-0462					
7	팀원	은퇴 권사	인영자	8		○ ○	2199					
8	팀원	사무 서리집사	임태영	7		○ ○	1313					

※ CMTC 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2019. 3. 양식변경]

담당

분과장

8/11
홍수안

8/11
정재명

선교소감문

미얀마7팀(팀장) : 김원기 집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얀마7팀을 이끌어 주셨고 부족한 종을 팀장으로 세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9명으로 팀원이 구성되었으며 한 분의 권사님은 남편이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후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선교팀에 합류하여 동참하였고, 한 분의 여집사님은 선교팀훈련을 마친 상황에서 손목 골절상을 입어 불참하게 되어 결국 8명의 팀원이 출발 시부터 인천공항에서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께 합심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다.

우리팀은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지역을 선교지역으로 확정하고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조증덕 목사님과 강영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교준비를 하였다. 양곤 외곽지역에 작년까지는 흘랑따야충현방과후학교로 불리우다가 금년에 흘랑따야7동교회로 개칭하여 사역하시는 교회에는 60여명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사역과 영어교실, 한글교육 등으로 알찬 선교활동에 전념하시는 선교사 부부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물론 그곳에는 현지인 전도사, 영어교사, 보조교사 등의 많은 도움을 받고 계셨다. 선교 2일째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175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찼다. 17명의 보조교사인 학생들이 지도교사의 수신호에 맞추어 울동을 하며 준비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천사들이 미얀마의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듯했다. 목사님의 소개말씀과 기도에 이어서 천지창조, 우리함께 찬양을, 주기도문 색칠하기, cheer up!, 부채 만들기 등의 어린이 사역활동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도 아이들이 주의집중과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

선교 3일~4일째에는 양곤 시내 기차 내의 선교활동, 양곤대학과 인야호수 인근지역, 아웅산 국립묘지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대학생과 다양한 성인들을 만나서 선교하는 활동을 하였다.

선교 5일째에는 오전에 찬양과 울동, 복음팔찌 만들기, 부자와 나사로 공연이 있었는데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남집사님의 밤새워 준비한 열정적인 공연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초청된 모든 학생들에게 chicken soup을 대접했는데 모두가 즐거워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무척 기뻐하실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달란트잔치가 개최되었다. 서울에서부터 끙끙대며 짐을 분산하여 가며 준비했던 학용품과 옷가지,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사님 내외가 준비한 어린이 선호용품들을 품목별로 셋팅하여 시작했는데 십시간에 모든 물건이 동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선교 6일째(주일)에는 로뎀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한국인 선교사 7가족이 합동으로 시무하며 말씀사역을 위한 예배당,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당, 대학생 지원을 위한 기숙사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양곤 시내의 대학생 70여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였다. 공교롭게 이날 예배에 조증덕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선교팀이 울동을 겸하여 2곡의 현지 찬송을 불러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 선교회장님의 설명을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미얀마에는 130여 종족이 있는데 크게 민족과 언어가 다른 7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고, 선교의 핵심은 지배족의 역할을 하는 버마족을 선교하는 일이라 한다. 흘랑따야7동교회와 로뎀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버마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를 하고 돌아왔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기도로 후원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선교소감문

미얀마 7팀 윤수진

선교지 : 미얀마 양곤 일시 : 7월 30일(화) ~ 8월 5일(월)

미얀마를 향한 세 번째 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선교는 조중덕 목사님과 강영미 전도사님께서 중장기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흘랑따야 7동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달란트 잔치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돌아왔다. 여름 성경학교와 달란트 잔치를 계획하고 계시고 미얀마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에 우리팀은 서울에서부터 주기도문 색칠공부, 색종이접기, 레크레이션등을 준비하였고 달란트 시장을 위하여 교구 식구들의 기부 물품과 어린이 사역비로 달란트 물품들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를 준비하였다.

미얀마 도착 바로 다음날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평소 교회 출석 인원의 3배가 넘는 숫자의 아이들이 참석하였다. 우리가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리고 물은 빠질 곳이 없어 썩은 쓰레기와 뒤섞인 물바다를 맨발로 건너가 가가호호 교회 주변 집을 틀러 전도하였고 달란트 잔치 시간에는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을 볼 수 있었다. 방과후 성경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원하는 물건을 샀다며 방방 뛰며 좋아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볼 때 열악하고 말할 수도 없는 환경 속이었지만 아이들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열망하였고 지치지 않았다.

양곤대학교 안에 위치한 169년전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기념교회 안의 젊은 학생들, 흘랑따야 교회의 아이들을 보며, GMI세계선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로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불교의 국가 미얀마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땅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길 기도 드린다.

선교 소감문

미얀마 7팀 임태영

선교지 : 미얀마 양곤 일시 : 7월 30일(화) ~ 8월 5일(월)

이번 선교를 통해 교회에서는 2007년에 다녀오고 가게 되었는데, 준비 훈련 기간 동안 나의 위치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준비한 거 같다. 사역 준비 과정과 사역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순간순간 알 수 있었다.

사역지에서 회계의 역할을 맡으며 팀원들의 필요를 알아가며 사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매일 밤 정산을 하는 과정이 또 다른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사역지에서의 사역을 통해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미얀마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팀이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이 너무 감사 했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많이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

부디 미얀마가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눌한 현지어지만 복음을 현지어로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복음을 들고 여접 기도 하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보고 무척 기뻐하셨을 거 같다.

선교 소감문

미얀마 7팀 이수길

선교지 : 미얀마 양곤 일시 : 7월 30일(화) ~ 8월 5일(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2019년 7월 30일 미얀마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과 마음을 실었다. 책과 영상으로 보아 왔던 자연의 신비스러운 나라에 나의 발자국이 바닥에 닿았을 때 깊은 숨을 내쉬우며 첫 한마디, "주여! 이곳에 왔습니다."

인구의 89%가 불교를 숭배하는 이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심어 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허락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 비록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진다면 이 생명 기꺼이 받치고 싶은 심정으로 이 곳에 온 것이다.

한국은 무더운 날씨를 두 달만 참으면 끝이 나지만 여기는 1년 내내 우기와 건기가 있는 습한 이곳에서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도전으로 7일간의 여정이 시작 되었다.

첫째 날, 어린이 전도 사역에서 예배당에 모인 맑은 눈방울을 가진 아이들은 하나둘 용기종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주기도문 그리기, 색종이 접기, 찬양 등을 함께 따라하고 예수님의 참사랑의 행적을 느끼며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인센부다용역 주변, 이동 중 기차 객실 내, 양곤 대학 캠퍼스, 민야호수에서 노방 전도를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 학생들에게 짧은 미얀마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 눈과 몸으로 전하는 교감 전도를 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날 예배당에 모여 부자와 나사렛 연극 준비를 기도하고 합심하면서 연출한 것에 아이들이 큰 감동을 이끌어 내었고 달란트시장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선물을 받는 것에 성탄절 기쁨과 같은 분위기로 거기에 온 아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 하였다.

마지막 날 로렘교회(동역협력선교사) 주일예배 참석하여 예배 드리며 단기 선교 활동 의미를 현지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으로 깨닫고 현지 교회 청년들이 한국 교회 청년들처럼 못지않은 열정과 찬양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으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체험하였고, 선교에 필요한 준비에 미비 했던 부분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 모두가 미얀마에서 짧은 시간에 서로 협력하여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희생 봉사함으로써 많은 현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만나 예수님 말씀을 서로 교감하고 전하다보니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 스스로 감사의 은혜 눈물을 머금게 되었다.

선교 소감문

미얀마 7팀 이유순

선교지 : 미얀마 양곤 일시 : 7월 30일(화) ~ 8월 5일(월)

내 나이 70이 넘어서 처음 해외 선교를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이나 언어, 젊은 사람들과의 팀워크 등.. 그러나 용기를 내어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미지의 세계로 도전해 보기로 하고 미얀마 7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8명의 선교단으로 미얀마 양곤의 조중덕, 강영애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후랍따이야라는 빈민촌으로 가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미리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각자의 역할과 쓰임으로 놀라울 정도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듣고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다음날은 기차를 타고 사역했습니다. 너무도 어린 사람이 아기를 임신 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니 잘 듣고 행복해하면서 영접기도도 했고, 기차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곤 대학교(Judson church)에서 그의 생애를 생각해보았고, 200년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양곤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도였지만 웃으면서 우리의 말을 경청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인레호수에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듣고 영접했습니다.

다음날은 후랍따이야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배수 시설이 되지 않아서 전날 내린 비로 길이 더러운 물로 가득 차서 신발을 벗고 갔습니다. 달란트 잔치에서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무거운 것을 힘들게 갖고 온 것도 모두 잊고 나 또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미얀마족인 그들은 뿌리 깊은 불교도이기에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이어서 많은 노력과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는 식대를 아껴서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6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보니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8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 그곳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는 한국의 선교사들의 모임체인 로렘 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5박 6일의 짧은 선교 여정 속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과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 깊은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 소감문

미얀마 7팀 유미향

선교지: 미얀마 양곤 일시: 7월30일(화)~8월5일(월)

미얀마 양곤으로 떠나는 작년에 이은 두번째 발걸음

비만 오면 온갖 오수와 하수가 뒤섞인 범람하는 골목길에서의 힘들었던 작년 기억이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올해도 휴가를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마음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역은 조증덕 강영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흘랑따야 7동교회를 기점으로 진행되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가만히 있어도 땀이 범벅이 되는 습한 기운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이들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의 환영을 받으며 두분 선교사님들의 결실의 열매를 보는 듯 했다

기차안에서 공원에서 대학교에서 또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눌한 언어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길 ,영접하길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나,그리고 팀원들을 보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열정으로 이끄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입을 열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담대함이 생겼을까?

그것은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를 이끄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를 통해 반석위에 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특히 같이 동행한 세 분 권사님들의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전한 마음을 사역 기간내내 보며 들으며 나도 저 나이가 되어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 겠다 생각하게 되었다

팀원 구성원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세밀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훈련을 선교 사역 과정중에 두신 것을 감사한다

미얀마는 지금 복음사역의 적기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라는 이국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준다

단 1분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재가 생각났다

우리가 영광스런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을 자라게 하실것을 믿는다

세속주의가 물 밑듯이 이 나라를 덮기 전 이국민에게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때 저들이 진리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그리스도 내 주님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언제 죽을 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믿게 하고 죽어야지”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도전한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제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보듬어 주시며, 가지가지 할란에서
나를 북돋고 이번에 미안한 단기
성고사로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리라. 영광 마야 공동 교회에
많은 사랑 영혼을 보내주세요
추천된도 노방된도 많은 영혼을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영접한
영혼 구원해 주세요 미안마. 모든 영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8교구 인 영 자. 이사

미안과 감사 오 영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가도록 다음에게 하시고 거둔 은혜를 함께 하시며 미안과 감사의 마음을

"능력히 되지 말고 충성되게 하고 믿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 영생의 복을 전하게

하시고 복을 전하며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팀 구성이라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았거나 생각했던 것들은

인간의 생각일뿐 - 성경의 언약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연합하여서 일하게 되며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하거나 No가 없이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하게 하시며 이미 200여년에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의 문을 열었지만 사람들의 믿음으로 문이 열렸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미안하.

자금이 애인것 같습니다. 개척을 위해 미안하게 복음의 이끼를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들 삼자가가 듣게 되어서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리더들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복을 전하며 이리저리서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사모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주님께야 모든 영광의 16명의

주목하고 어린이들의 성령 부흥이 성령의 복을 받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미안하게 주님의 일꾼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 사 함니다 -